

다니엘의 책 - 번호 135

1776년, 1789년, 1798년의 예언적 목소리들: 14만 4천의 인침을 위한 서곡

Jeff Pippenger

2024-03-14

1776년, 1789년, 1798년의 역사는 14만 4천의 인침의 역사를 보여 준다. 그 각각의 날짜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말하였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 차례 말한 것으로 예표된 세 이정표는 2001년 9월 11일, 2023년 7월, 그리고 곧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의 그리스도의 세 음성과 병행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요한계시록 1:10.

그 세 가지 음성적 표지 각각은 고조되어 가는 셋째 화의 '울림'을 가리키며, 그것은 또한 일곱째 경고 나팔이고, 나팔은 곧 음성이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사야 58:1.

2001년 9월 11일 개신교의 뿔을 향해 들려온 음성은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를 예레미야의 옛 길로 돌아오라고 부르던 파수꾼들의 음성이었으나, 조롱하는 자들의 회중은 그 길로 행하기를 거부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으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이르기를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예레미야 6:16, 17.

2023년 7월의 목소리는 2020년 7월 18일의 첫 실망 이후 침묵해 오던 Future for America 사역의 부활이었다. 요한이 임박한 메시아를 선포했듯이, 또 유스티니아누스가 임박한 적그리스도를 선포했듯이, Future for America는 곧 다가올 일요일 법에서 미국의 미래가 영원히 바뀌려 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이정표에서 일곱째 나팔이 울릴 것임을 밝혔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곧 2023년 7월의 목소리였다.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처럼 말하게 될 곧 임할 일요일 법령 때에 울려 퍼진다. 그때 "나귀"가 세 번째로 타격을 받고, 이어 "나귀"가 말할 것이다. 그 "나귀"는 2001년 9월 11일 직후에, 그리고 2023년 10월 7일 이후에 타격을 받았으며, 곧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 다시 타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말할 것이다. 발람의 증언에서 그 나귀는 천사에 의해 길에서 벗어났는데, 그 천사는 이슬람의 네 바람을 불들라고 명령받은 네 천사를 상징한다. 그러나 일요일 법령 때에는 이슬람의 나귀가 일곱째 나팔의 소리, 곧 셋째 화의 소리로 말한다.

바로 그곳에서 2020년 7월 18일 이후 지체해 온 이슬람에 관한 환상이 말한다. 이는 그때에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 때문이다. 14만 4천 명의 인침 기간에는 많은 음성이

있으며, 그 기간은 곧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집행 심판에 앞선다. 하나님의 집행 심판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들로 상징된다. 그 기간은 성령의 부으심으로 시작되며, 성령이 부어지고 불의 혀들이 그 사건을 증언하던 오순절의 반복을 나타낸다. 그 시점의 부으심은 더 이상 한정되지 않으니, 그때에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연합하는 그 천사는 자기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적 범위와 전례 없는 능력을 지닌 한 사업이 예언되어 있다. 1840-44년의 재림 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난 사건이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 전파되었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래 어느 나라에서도 목격된 적이 없을 만큼 가장 큰 종교적 관심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조차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일어날 강력한 운동에 의해 능가될 것이다.

그 역사는 오순절 날의 역사와 유사할 것이다. 복음이 시작될 때 성령의 부으심 가운데 '이른 비'가 주어져 귀한 씨가 싹트게 된 것처럼, 복음의 마침에는 '늦은 비'가 곡식이 익도록 주어질 것이다. 대쟁투, 611.

2001년 9월 11일에 십사만 사천의 인침이 시작되었고, 성령이 일정한 분량으로 부어졌다. 그 부으심이 분량대로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오순절의 역사 속에 표상되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오라, 아버지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하였고, 이는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으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부르신 것과 같았다. 2023년에 그리스도께서 두 증인의 죽은 마른 뼈들에게 "나오라"라고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부활 후 그분은 먼저 아버지께로 올라가셨고, 그런 다음 2001년 9월 11일에 하신 것처럼 내려오셨다. 그 후 그분은 마리아를 만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 가르치시고, 이어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일들을 통해 점차 제자들을 깨우치셨다. 마침내 승천하시기 전까지 사십 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로부터 열흘 뒤 그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한량없이 부어지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만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이 죽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셨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며, 또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 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시대의 소망, 804.

2023년 7월, 예수님의 음성이 죽은 두 증인을 깨웠고 모세의 율법('일곱 때'), 선지자들(느부갓네살의 짐승들의 형상), 그리고 시편(모세와 어린양의 경험)에 기록된 모든 것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를 열어 주기 시작했다. 그분의 가르침 사역은 그분의 부활 때에 시작되어, 이어지는 사십 일 동안 점점 심화되었다. 그것은 그분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신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이 기쁨에 겨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을 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별집 한 조각을 그에게 주었다. 그가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먹었다. 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가 이것이니,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24:41-44.

기도는 진행되어 온 역사에서 주요한 이정표였고,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사십 일 후 승천까지의 역사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질 오순절까지 열흘(열은 시험을 뜻한다)을 남겨 두었다. 그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이어서 다시 내려오심은 2001년 9월 11일을 표상한다. 2023년 7월은 사십 일의 끝을 표상하며, 2023년 7월 이후의 열흘은 곧 임할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진다. 그 마지막 열흘의 기간에는 연합과 기도가 이정표이다. 그 연합은 에스겔 37장의 첫 번째 예언으로 표상되었는데, 그 예언은 뼈들과 힘줄과 살이 함께 모이게 했다. 에스겔의 두 번째 예언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였고, 그 생기는 기도의 상징이다. 그 마지막 열흘 동안 14만 4천은 인침을 받는데, 그들은 나사로로 예표되어 왔다.

이것이 그분께서 베다니로 가시기를 지체하신 이유였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절정의 기적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신성 주장 위에 하나님의 인을 찍기 위한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529.

이 절정의 기적 동안에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인쳐질 뿐 아니라, 미련한 처녀들도 그 문제에서 잘못된 편으로 인쳐진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기적—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백성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급속히 무너뜨리고 있던 예수와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서 없애 버리려는 제사장들의 결심을 확고히 했다. 사도행적, 67.

곧 임할 일요일 법령을 앞두고 십사만 사천인의 인침의 역사 속에서 들려오는 많은 음성들은 "줄 위에 줄", 곧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의 음성들이며, 그 음성들은 "모든 환상의 효력"이 성취되는 기간에 울려 퍼진다. 그 음성들은 일곱째 인이 열릴 때 들린다.

그가 일곱째 인을 떼셨을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게 하려 함이더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 땅에 쏟으매, 음성들과 뇌성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요한계시록 8:1-5.

일곱째 인의 개봉은 침묵을 가져왔다. 이는 그 시기가 경륜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거룩한 경륜이 바뀔 때에는 천사들이 음악과 찬양을 멈추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증언하듯 하늘에는 언제나 침묵이 있다. 하늘의 침묵은 속죄일의 규례도 그것을 증언하며, 1844년 10월 22일에는 하박국 2장 20절이 온 땅이 침묵할 것을 명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함을 얻고 살 수 있도록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기를 낮추심을 보게 되었다. 나는 아담과 하와를

보았다. 그들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볼 특권을 받았고, 동산의 한 나무만 제외하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받았다. 그러나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고, 그녀는 남편을 유혹하여, 그들은 둘 다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인이 되었다. 그 소식이 하늘에 퍼졌고, 모든 수금의 소리가 잠잠해졌다. 천사들은 슬퍼하며, 아담과 하와가 다시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사는 죄인이 될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법자들을 동산에서 내쫓고, 그룹들과 불타는 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셔서, 사람이 그 나무에 가까이 가 그 영원한 생명을 지속시키는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초기 문집, 125쪽.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을 때 하늘은 침묵했고,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을 때 하늘은 침묵했으며, 그의 백성에게서 죄를 제거하는 일로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도 하늘은 침묵했다.

하늘 성소에서 인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중보는 구원의 계획에 있어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만큼이나 필수적이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 일을 시작하셨고, 부활하신 후 하늘에서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승천하셨다. 대쟁투, 489쪽.

1844년에 셋째 천사가 도래할 때 심판의 사역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신성과의 영원한 연합을 이루기보다 광야에서 죽는 길을 선택했다. 2001년 9월 11일에 셋째 천사가 다시 도래했고, 하늘에는 다시 한 번 침묵이 흘렀다. 그때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셋째 천사가 마지막 세대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곱째 인을 떼기 시작하셨다.

일곱 심판의 천사들이 거기에 있어 파괴의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십사만 사천이 인침을 받는 동안에는 '멈춰라, 멈춰라, 멈춰라, 멈춰라'라는 명령을 받았다. 신실한 자들의 이중의 기도가 하늘로 보내졌는데, 이는 오순절에 앞선 열흘, 곧 마흔 날(광야의 상징) 뒤에 시작된 기간으로 예표되었고, 요한계시록 11장의 사흘 반(광야의 상징)을 대표한다. 그때 두 증인은 광야에서 들려온 음성으로부터 그들이 다니엘의 두 기도를 성취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곧 다니엘서 2장의 기도, 즉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짐승의 형상에 관한 느부갓네살의 은밀한 꿈을 이해할 빛을 구하며 드린 기도와, 다니엘이 혼자 기도한 9장의 기도, 즉 레위기 26장의 기도의 요건을 성취하는 기도였다.

다니엘서 2장의 공동 기도는 예언적 역사의 외적 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숨겨진 비밀에 관한 빛을 구하는 것이었다. 다니엘서 9장의 사적인 개인 기도는 내적 필요에 관한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다. 2001년에 늦은 비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줄 위에 줄'의 방법론을 이해한 이들은 많은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제단에서 땅으로 던져지고 있던 그 불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최종적인 분리를 낳는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가 그 상징적 열흘 동안 계속 전개됨에 따라 그 메시지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 메시지는 셋째 화의 점증하는 위기였으며, 에스겔 37장에서 그것은 먼저 두 증인을 함께 모으고 이어 그들이 강한 군대로 서게 한 두 가지 예언이었다. 그 후 37장에서 그들은 한 막대기로 합쳐지며, 이렇게 하나의 막대기로 결합되는 연합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상징하고, 이는 14만 4천인의 인침의 최종 국면에서 성취된다.

2023년 7월, 기도들이 상달되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은 다니엘서 9장과 2장에 나오는 기도들이었다. 그때 음성들과 천둥소리가 들렸고, 번개도 보였다. 번개와 천둥은 자연계에서든 예언에서든 비와 함께한다. 비는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다. 번개와 천둥에 대한 첫 언급은 그것이 경건한 두려움을 일으키도록 의도된 메시지임을 밝히고 있다.

셋째 날 아침이 되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산 위에는 짙은 구름이 덮였으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 퍼져 진영에 있던 모든 백성이 떨었다. 출애굽기 19:16.

번개와 천둥은 나팔의 "소리"를 동반했다. 그것들은 비를 동반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한 예언적 발자취를 상징한다.

구름이 물을 쏟아부었고 하늘이 소리를 내었으며 주의 화살도 사방으로 나갔나이다. 주의 우레 소리가 하늘에서 울리고 번개가 세상을 밝히며 땅이 떨며 흔들렸나이다. 주의 길은 바다에 있고 주의 행로는 큰 물 가운데 있으며 주의 발자취는 알려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주의 백성을 양 떼 같이 인도하셨나이다. 시편 77:17-20.

천둥과 번개는 비 오는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그 기간 동안 그분은 자신의 창고에서 바람들(이슬람은 동풍이다)을 꺼내신다.

그가 그의 음성을 발하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며, 땅끝에서 안개를 올라오게 하시고, 비와 함께 번개를 만드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느니라. 예레미야 10:13.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실 때 자신의 음성을 내셨고, 이에 응답하여 일곱 우레가 그들의 음성을 발하였다. 그 일곱 우레는 밀러주의 운동의 역사와 또한 셋째 천사의 운동에서의 하나님의 발자취를 나타내며, 그 셋째 천사의 운동은 2001년 9월 11일에 다시 도래했는데, 그때 그분께서 자신의 보물 창고에서 동풍을 내셨다.

그는 땅끝에서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고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느니라. 그는 이집트의 처음 난 자들, 곧 사람과 짐승을 치셨도다. 시편 135:7, 8.

애굽의 장자들이 치심을 당했을 때, 그는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이끌어내셨고, 유월절은 십자가를 예표하였으며, 그 십자가는 다시 1844년에 셋째 천사의 도래를 예표하였고, 그것은 다시 2001년 9월 11일, 동풍의 날에 있었던 셋째 천사의 귀환을 예표하였다.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에서 인들이 떼어질 때, 그것은 진리의 점진적인 전개를 의미한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것은 십사만 사천이 인쳐지는 때를 의미한다.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이 처음 언급될 때에는 번개와 천둥과 음성들은 있으나 지진은 없다.

또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소리와 여러 음성이 나왔고, 보좌 앞에는 불의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요한계시록 4:5.

음성들과 번개들과 우레가 처음 언급될 때, 비는 불의 일곱 등불이신 성령으로 상징되지만, 지진은 없다.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과 관련된 지진이 드러나는 것은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이다. 요한계시록 4장은 유다 지파의 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리의 봉인

해제의 시작을 밝혀 주며, 인치는 때가 밝혀지면 그 기간의 시작과 끝도 밝혀진다.

현재 시기의 시작은 2001년 9월 11일,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땅을 밝히기 위해 내려왔을 때였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 우리는 '소리, 번개, 천둥, 바람과 비'로 표현된, 주일법에서 마무리되는 그 메시지가, 보기는 하지만 번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하지만 큰 지진이 그들을 덮칠 때까지 소리와 천둥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함을 알게 된다. 십사만 사천이 인침을 받는 기간은 모든 이상의 효력이 성취되는 기간이다.

그 역사는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낳고 드러낸다. 한 부류는 비를 알아보고, 그러므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번개를 보고, 음성들과 천둥과 바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침의 기간이 끝날 때, 곧 다가올 일요법령의 큰 지진이 하나님의 집행 심판을 초래한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의 성전 안에서 그의 언약궤가 보였으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 요한계시록 11:19.

큰 지진 때에 "번개와 음성들과 천둥"에는 "우박"도 포함된다. 이 "우박"은 일곱째 인이 열리던 때, 인치는 때의 시작에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고 있던 일곱 천사들에 의해 쏟아지기 시작하는 심판을 가리킨다. 이는 그들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지나가며 그 땅(외부)과 교회(내부)에서 행해진 가증한 일들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표를 찍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것과 같다.

"우박"은 하나님의 파괴적인 심판의 때를 가리키며, 그때는 하나님의 다른 양 떼에게는 자비의 때이므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을 받는 시기이고, 큰 무리의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님의 양 떼에 합류하면 인류를 위한 은혜의 시기는 완전히 끝난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에 있는 성전, 곧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더라. 또 음성들과 우레와 번개가 있었고, 사람이 땅 위에 있는 이래로 없었던 심히 크고 강한 큰 지진이 일어났다. 큰 성은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으며, 큰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주시려 함이었다. 요한계시록 16:17-19.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목소리와 천둥소리가 들리십니까? 번개가 보이십니까? 바람을 느끼십니까? 곧 기름을 달라고 애원하는 미련한 처녀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기다렸으나 좋은 일이 오지 않았고, 치유의 때를 바라였으나 보라, 환난이 왔도다! 그의 말들의 콧김 소리가 단에서 들렸고, 그의 힘센 말들이 헹헹거리는 소리에 온 땅이 떨었나니, 그들이 와서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자들을 삼켜 버렸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주술로 길들일 수 없는 뱀들과 살무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물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슬픔을 위로하려 할 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기진하도다. 보라, 먼 땅에 사는 자들 때문에 내 백성의 딸이 부르짖는 소리가 있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신가? 그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어찌하여 그들이 조각한 우상들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추수는 지나고 여름은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 내 백성의 딸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람이 나를 사로잡았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없느냐? 거기에는 의사가 없느냐?
그런데도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였느냐? 예레미야 8:15-22.